

##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31-39)

지난 주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보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결국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이건데, 해도 마음에 잘 안들어 올 때도 있다. 분명히 이것을 진짜 생명결고 해야 되는 것을 다 아는데, 내 마음에 잘 안들어온다. 나도 그런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노력을 하고 세월이 지나는 사이, 차츰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언약으로 잡고 영적 전쟁을 하면 자꾸 이렇게 될 줄 믿는다. 그러면 지난 주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남은 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도 받을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 뜻을 기도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 바란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을 많이 배우는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한가지를 조금 더 깊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간단하고, 기도도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다. 그리고 사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어려움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있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어느날 삼십년 전에 해결되었던 문제가 이유없이 나타났다. 그게 불안증이다. 30년 전이니까 다 나았다고 생각했다. 어느날 그 날부터 이유없이 찾아왔는데, 5년이나 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유없이 불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괴롭혔다. 그런데 정말 은혜는 잠잘 때 되면 기도도 안했는데 괜찮아졌다. 그래서 잠은 잘 잤다. 잠이 잘 안왔으면 정신과 약을 먹었을 것이다. 한달 두달도 아니고 5년이니까. 그런데 오전에는 최고로 힘들었다. 오전에 어쩌다 누구에게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소리 하기가 너무나 귀찮았다. 아내는 같이 사니까 이런 저런 말 하는게 당연한데, 나는 무슨 소리가 많냐는 것이다. 너무 힘들어서 그때 메세지도 들었지만 간증을 많이 들었다. 유튜브 간증에 보면 각종 어려움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다가 어느날 어떤 권사님 간증을 들었다. 이 분은 우울증으로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던 분이다. 당연히 권사니까 기도한 것이다. 어느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나은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필요 없고,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온 것이다. 그 순간 이 사람이 가방들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분이 일년에 몇백명 전도해서 자기 개인의 교구가 있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 분이 어떤 모임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후에 우리도 이 전도를 위해 손들고 기도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남자 한 사람이 한 40대 되었는데, 손들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때 나도 손들고 기도했다. 나는 평생 손을 드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거 마치고 그 때로부터 한 이틀동안에 기도가 한 10초, 20초 짜리였는데, 이 병고쳐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지금 기억에는 고쳐달라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남미 생각하면서 한 기억은 남아 있다. 수시로 생각하면 손들고, 차타고 가다가도 손들고 기도했다. 10초, 20초, 아무리 길어도 30초, 지금 내 기억으로는 한 10번 정도 했을까 싶다. 아무리 많이 해도 20번은 안되었던 것 같다. 이틀정도 생각하는데로 했는데,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게 불안한게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불안이 아니라 복음 전하겠다는 고백이었구나. 결국 5년이나 괴롭힌 그 이유가 시간표가 되었으니 복음 전해라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 후 2년 정도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일이 생겼다. 아프게 아니고, 정기적인 검사였다. 예약을 한 후에, 이상하게 무슨 큰 병이 있는 것 같은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도를 안하고는 못 견디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시로 침대 위에서 무릎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다. 그래야 조금 유지가 되는 것이었다. 사실, 거의 하루 내도록 기도 안하면 불안해서 안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도해도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았다. 한 한주반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생각이 하나 들어왔다. 2년 전에 손들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이었다. 완전 잊어버리고 놓고 있는 것이었다. 놀

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생각이 가슴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쓴웃음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니가 그정도밖에 안돼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각오를 다시 다졌다. 그때 이후로 내 마음에 살아 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남미 끝까지 가야 한다. 그 전에도 남미 끝까지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단어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꽃혔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두 번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다. 문제가 있을때에는 이런 저런 생각으로 회개도 많이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라.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혹 있을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개 딱 있다.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한 개에 맞춰지게 되어 있다. 그 초점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언약이 되기 바란다. 그러면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 주일에 솔로몬이 가진 마음, 기도와 같아진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남아 있는 것이다. 기도 안해도 응답이 된다.

### 1.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선포한다. 이 은혜 없으면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할수 없다.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할것이야고 하였다.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고발하겠느냐는 것이다. 34절에는 누가 정죄하겠느냐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밖에 없다.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중에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간중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지나간 것같이 말해도 엄청난 말이다. 누가 죽음에서 나오겠는가?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다. 35절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문제와 위협에도 끊을수 없다는 것이다. 37절에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도. 넉넉히 이길수 있는 힘이 있다. 오늘 찬양에서도 이야기 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흑암권세 멸하시려 오셨다고 하셨다. 놀랍다. 이 언약 딱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서 결론은 38절에 내가 확신하는데 어떤 것이라도, 천사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수 없다는 것이다. 만들어진 것 전부 다를 말했다.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부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전부 만들어진 것이다. 천사들이나 다 만들어진 것이다. 높던지 낮던지 어디에 뭐가 있든지 다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수 없다. 이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뒤집을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죄 짓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결정 나서 아무도 못 뒤집는다. 우리에게 나온 그 어떤 것도 결정을 뒤집는 일은 안 일어난다.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수 없는 것이다. 웬일인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이 사랑으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로도 사랑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시에 그 어떤 피조물로도 이 사랑에서 끊는 일도 불가능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이 길 뿐이다. 그리고 이 길은 완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 은혜와 믿음으로 이 사랑과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뭐를 해서 구원받으게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쓸모 없어도 이 사랑은 여전하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기도해도 응답 없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속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 아무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수가 없다. 참 감사한 일이다. 이 확신이 있는 사

람은 힘이 있다. 여기가 출발선이다. 문제 때문에 사단 때문에 우리가 밀려 갈수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 부터는 되받아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런 저런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 여기서 다시 되받아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다. 나는 본래 긍정적인 인간이다. 실패 이런 것은 신경 별로 안 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것은 왜 이래 진도가 안나갈까 하는 것이었다. 약간 원래 긍정적이어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모양이다 라는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안되서 자꾸 밀리면 끝에서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것이면 된다는 생각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확신 가지는 거,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우리는 다섯가지 확신을 주로 이야기 한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과 승리와 사죄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우연이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하면 안된다. 그 때에도 항상 확신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선택 안하는 경우가 많다. 실수이다. 그 때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뱀의 머리가 깨진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때로는 왜 응답이 안되는가? 말한대로 시간표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죽으라고 하는게 아니다. 절대 어려움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 뜨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되게 되어 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을 확신하고 힘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지는 법은 없다. 언약을 안 잡았을 뿐이다. 아무리 실수하고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찍으셨다.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사단에게 지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대로 둔다면 그건 말이 안된다. 사단이 우리를 이기는 법은 없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는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을 믿어야 한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도 사함받은 것을 믿어야 한다. 과거의 모든 죄, 오늘 지은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다. 아무도 손을 못댄다. 심하게 말하면 과거에 지었던 죄, 그 중에서 회개 못한것도 다 용서되었다. 회개를 철저히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회개를 해야지, 그래야 죄 사함을 받지. 결론부터 말하면 회개 안해도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 받는 근본 답은 근본 답은 회개가 아니고 믿는 것이다. 회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을수가 없다.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죄를 다 사해준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다. 앞으로 지을 죄도 끝났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이다. 연약한 피조물, 우리 끼리 모여서 과거 현재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다. 용서했다면 영원히 용서이다.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이다. 언약 잡아야 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신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신다. 조금 심한 것은 조금 오래 기도해야 되고 간단한 것은 한번 기도해도 끝나고 그렇다. 그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본래 회개라는 근본 뜻은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뭔가? 믿음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 하나 뿐이다. 그리고 이것 하나로 완전하고 영원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믿는 순간에 끝나버렸다. 다시 되돌아 가는 일은 절대 안일어나나. 왜 안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허락을 안한다. 그래서 끝나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고 증인되라는 것이다. 그게 죄사함이다.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주에서 나온다. 저주의 이유가 죄이기 때문이다. 육신적 저주에서도 나온다. 육신적 저주에서도 나온다. 방법이 뭔가?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누리라는 것은 진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안에 그를

언약으로 잡으라는 말이 들어 있다. 이름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면 그 언약을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중대한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시 한번 언약이 되기 바란다. 정리를 하고 언약으로 잡고 물러서지 않고 이것으로 전쟁을 붙여야 한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

## 2. 그리스도 예수 안에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수 없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구약의 그리스도는 희생제사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양의 죽음이었다. 창세기 3:21절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구약의 절대 언약이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한 개인이나 왕이나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이 임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권세를 누리 사람도 있었다.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몇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았다. 기록에서 빠진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 우리는 이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키우면 더 감사하다. 이 복음을 누리면 사단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틀림이 없다.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난다. 조금만 해도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볼 수 있다. 만일 각인이 되면 시대적인 증거 나타난다.

이삭은 어린나이에 숫양이 자기 대신 제물이 되는 것을 보았다. 이 언약의 수양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안다. 요셉도 안다. 모세도 알고 있다. 모세 어머니 더 알고 있다. 이삭 알았다. 이 숫양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그 메시야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났다. 길게 설명도 안했다. 이삭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한 장, 창세기 26장에 적어냈다. 한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나왔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 하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다. 그 지역의 물의 근원을 잡았다. 지경이 계속 넓혀졌다. 인생이 이렇게 된다. 우리 인생이 100배의 인생 될수 있겠는가? 샘의 근원을 잡는 인생이 될수 있을까? 우리도 산을 옮길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면 뭐하는가? 이 시대의 산 옮기는게 뭔가? 진짜 남미 끝까지 가는 것이다. 미국은 영적으로 가면 골치아픈 나라이다. 능력이 있는 나라지만 영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최고로 골치아픈 나라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이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 운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산 100개 옮기는 것보다도 더 의미있다. 이게 우리가 100배의 인생 사는 것이다. 샘의 근원을 잡았다. 답을 잡았다. 산을 100개를 옮겨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언약 되어서 들어오면 기도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기도 안해도 들어오는 것이다. 이래야 뭐 좀 살만한 것이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워 대대로 내려가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언약 안에서.. 구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이 언약을 설명한 것이 출애굽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 간단한 일이다. 하나님은 그 날 저녁에 애굽을 다 깨버렸다. 완전히 깨버렸다. 400년동안 기도해도 안되던 것을 하셨다. 그 이후에도 이 언약의 피 때문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다. 물떨어지니까 바위에서 물 나왔다. 놀라운 일이다. 광야에서 먹을것이 없거나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바로 그날 저녁 발랐던 어린양의 피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 하나님 왜 이게 안되는가? 계속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간단한 것이다. 이 언약을 잡지 않으면 인생이 복잡해진다. 그리고 불안해진다. 그리고 뭐를 많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안해도 오는 응답이 와야되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계속 응답받으면 누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다. 난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응답이 쌓여있고 앞으로 계속 올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왜 내가 그런 소리에 잡히겠는가? 결국 인생 정복하는 것이다. 현장과 전도도 정복한다. 이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피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 보혈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생명 길로 오늘부터 깊이 기도를 통해서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